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5. 10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미 주

- 美 플로리다, '교사의 학내 총기휴대' 허용법안 통과로 논란
  - 5.1 美 NBC는 '18.2 더글라스고교 총격\* 사건의 대응책으로 △약물 검사·심리평가를 통과하고 △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에게 학내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, 민주당 및 일부 학교 이사회에서 同 법안을 반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
    - \* '18.2.14 他 고교학생의 더글라스고교內 총기난사로 학생·교사 17명 사망
- 美, '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' 20주기 즈음 인근 학교서 유사 총격사건 발생
  - 5.8 AP통신은 20년前 美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\*이 일어났던 콜로라도州 컬럼바인 고교로부터 약 11km 떨어진 스템스쿨에서 5.7 학생 2명이 동급생들에게 총을 쏘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보도
    - \* '99.4.20 컬럼바인 고교 재학생 2명이 학교에서 900여발 난사, 학생 12명·교사 1명 사망

#### 아 · 태평양

- 스리랑카, 부활절 연쇄 폭탄테러 용의자 전원검거·사살
  - 5.7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경찰청장 대행은 '부활절테러'에 직접 가담한 자들과 혐의를 받고 있는 공모자들 전원을 검거 또는 사살했다고 발표
    - \* 스리랑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NTJ와 JMI 등에 속한 극단주의자 140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검거작전 전개
- 印尼, 대선결과 발표 전후 폭탄테러 모의 ISIS 추종자 검거
  - 5.6 인도네시아 경찰은 대선 결과 발표일(5.22) 자카르타 인근에서 예정된 군중집회에서 대규모 폭탄테러를 계획한 ISIS 연계 테러단체 '자마 안샤룻 다올라'(JAD) 소속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

## 유럽

- 터키 쿠르드노동자당(PKK) 지도자 「외잘란」 \* 8년만에 변호사 접견
  - 5.6 터키 PKK 지도자 「압둘라 외잘란」은 '11년 이후 처음으로 허용된 변호인 접견을 통해 “시리아 쿠르드계가 헌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, 시리아 사태는 분쟁을 피해 해결되어야 한다”고 언급
  - \* '99 케냐에서 터키 당국에 체포된 후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터키가 '02 EU가입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한 후 가중처벌 종신형으로 복역 中
- 벨기에, '폭탄테러' 제보에 3개 지역 학생 2만명 긴급 대피
  - 5.8 현지 방송에 따르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네덜란드어권 3개(디에스트, 아르스훗, 베스테를로) 도시에 폭발물 경보가 발령되어 학생 2만명이 긴급 대피, 경찰당국은 곧바로 폭탄설치 여부 확인결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
  - \* 전날밤 베스테를로시 치안센터에 미상인이 해당지역의 한 학교에서 폭탄 폭발 제보

## 중동

- 이슬람권 라마단\* 6일부터 시작, 테러 발생 우려
  - 이슬람극단주의 조직은 “라마단 기간(5.6~6.4)에 순교(자살폭탄테러 등)를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”고 주장, 테러발생 우려가 고조
  - \* 무함마드가 성전 코란을 배운 신성한 달로 이슬람력 9월, 1개월간 해가 뜬 동안 금식을 하며 오락이나 유희도 절제
- 美, 이란産 광물 수출 봉쇄 발표로 美·이란 갈등 증대
  - 5.6 美 항공모함 중동 증파, 이란의 무장드론으로 美함정 위협 및 민병대의 공격계획 공개로 양국間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의 이란産 철강·구리 등 광물 수출 추가 제재 발표로 갈등 증대

## 아프리카

- 수단,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「알바시르」 前대통령 검찰조사 예정
  - 5.2 AP통신은 지난달 반정부 시위와 군부에 의해 축출된 「알바시르」 前대통령이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
  - \* 수사당국은 자택 수색 중 35억 수단 파운드(약1천220억원), 780만 유로(약101억원), 35만弗(약4억원) 등 거액 든 가방 발견

다게스탄공화국 승전기념일 행사장 폭발사건

- '02.5.9.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카스피스크市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지뢰가 터져 40여 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부상당한 사건
  - 승전기념일 행사를 위해 해병 군악대가 무명용사의 묘지를 행진할 때 사전에 매설된 지뢰가 원격조종으로 폭발
    - \* 같은 날 체첸공화국 승전기념일 행사에서도 귀빈석 밑에 설치된 지뢰형태의 폭탄이 터져 「카디로프」 체첸 대통령 등 14명 사망·50여명 부상
- 사건직후 테러사건 용의자 3명을 체포한 러시아 검찰이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사건정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,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체첸 반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
  - \* 다게스탄은 체첸공화국과 러시아군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1990년 이후 분리독립운동을 펼쳐 온 체첸 반군의 크고 작은 폭탄 테러가 계속된 곳

< 체첸전쟁 >

- (배경) 체첸공화국 지역은 6,000년전부터 체첸인이 살던 곳으로 16세기부터 러시아 민족이 이 일대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체첸인들의 독립투쟁이 시작, 러시아는 다른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체첸의 독립을 허용할 수 없는 상황
- ('94~96 1차 체첸전쟁) 1994.2 「두다예프」대통령의 독립 움직임을 러시아가 진압하면서 시작, 전쟁의 장기화와 막대한 전력소모 끝에 평화조약 체결
- ('99~ 2차 체첸전쟁) 1999.8 「바샤예프」 체첸반군 사령관이 무장세력 1천여명을 이끌고 다게스탄공화국 국경을 침범하면서 발발, 러시아가 체첸을 초토화시키고 2003.3 체첸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대신 러시아 연방의 일부임을 재확인하는 新헌법을 승인하였으나 이에 반발하는 체첸반군의 테러, 게릴라전 등 무장충돌이 현재까지 계속